

벼 이화명나방 피해양상과 관리요령

백채훈 간척지농업과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최근 벼 재배지역의 일부 품종에서 이화명나방에 의한 피해양상 및 피해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발생량과 피해가 적었던 이화명나방이 벼 품종 및 재배환경의 변화로 일부지역에서 발생량 및 피해가 많아 문제해충으로 대두되고 있어 각별한 관리대책이 요구된다.

피해양상

이화명나방은 유충으로 벋짚이나 벼 그루터기 속에서 겨울을 보낸 후 번데기를 거쳐 나방이 되고, 1년에 2회 발생하여 벼 줄기 속을 가해하면서 큰 피해를 준다. 과거에 이화명나방 발생의 감소는 농약사용량의 급격한 증가, 규산질 비료의 사용량 증가, 수증형 품종에서 수수형 품종으로의 변화 및 조기재배로 월동 유충의 생존을 감소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일부 품종의 변화로 발생양상 및 피해가 과거와 다르게 발생되고 있다. 줄기가 두꺼운 벼 품종일수록 그 피해가 심했으며, 줄기가 두꺼운 신동진의 경우 이화명나방에 의한 2화기의 줄기피해는 11.5%로 동진찰이나 호평에 비하여 피해가 가장 심했다. 20주 당 유충밀도는 25마리 이상으로 다른 품종에 비하여 유충밀도가 가장 높았다.

또한 최근 이화명나방의 피해증상도 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화명나방의 2화기 피해는

유충이 줄기를 가해하기 때문에 출수 직후에 이삭이 죽어버리는 백수현상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에는 유충이 벼의 여러 줄기를 이동하면서 가해하기 때문에 벼멸구에 의한 집단고사 현상과 유사한 피해증상을 나타내고 있다.

〈표 1〉 이화명나방의 벼 품종별 피해양상(2011년)

품종명	줄기직경(mm)	2화기*	
		피해경률(%)	유충밀도(마리/20주)
신동진	6.28	11.5	26.5
동진찰	5.22	2.4	2.0
호평	5.67	0.7	1.5

* 조사 : 2화기(9월 상·중순)

관리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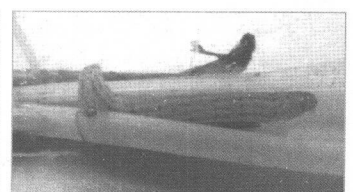
최근 들어 이화명나방의 발생시기가 빨라지는 경향이 있다. 일부지역에서 줄기가 두꺼운 벼 품종을 재배하는 지역일수록 이화명나방의 발생 및 피해가 급증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유아등이나 페로몬트랩을 이용한 정밀예찰과 적기 방제가 필요하다. ㉞



▲ 피해 받아 집단 고사한 벼



▲ 이화명나방 가해현상



▲ 이화명나방 유충

〈출처 : 농촌진흥청 농업기술 2012년 5월호〉